



# 보도자료

책임자 김해식 실장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41)  
 작성자 김해식 연구위원(3775-9041)  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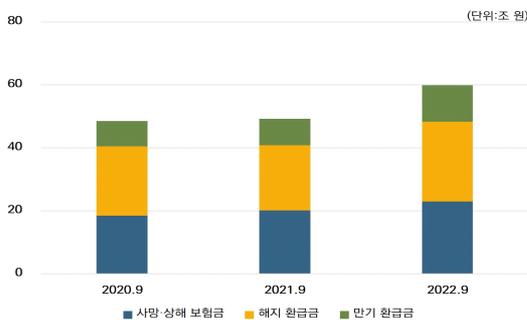
보도 2023. 3. 31(금) 조간부터  
 (온라인 2023.3.30(목) 12:00부터)  
 배포 2023. 3. 29(수)  
 매수 총 3매

## 보험연구원, 『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: 2022년의 경험과 과제』 CEO Report 발간

“2022년 경험,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강화와 사업기회 확대 계기로 삼아야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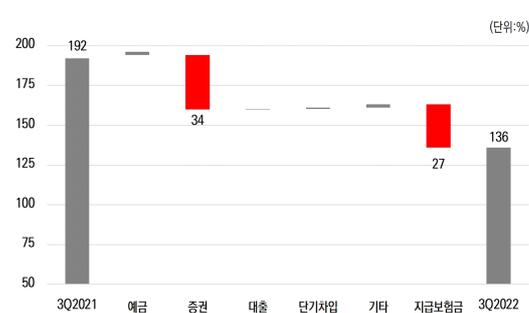
-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장) 등은 보험산업이 경험한 2022년의 유동성 부족 상황을 평가하고,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『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: 2022년의 경험과 과제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2022년의 유동성 부족) 2022년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락과 지급보험금의 급증으로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을 경험함

<그림 1>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변동 추이



주: 각 연도 9월까지의 누적 기준임  
 자료: 예금보험공사(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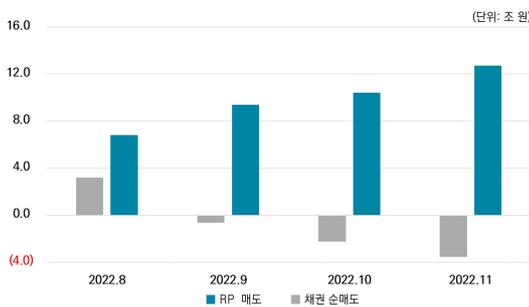
<그림 I-6> 생명보험 유동성비율 변화와 증감 요인



주: 유동성비율 = 유동성 자산 ÷ 3개월 평균 지급보험금  
 자료: 김혜연·권윤정(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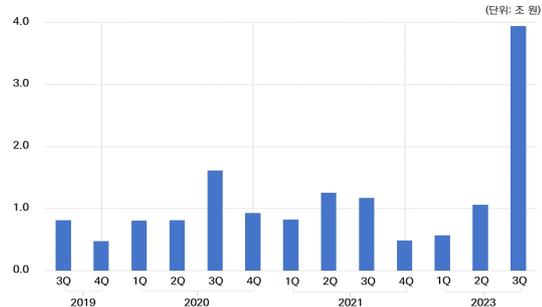
- (2022년의 자금조달 경험)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리 급등으로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국채 등 고유동성 장기 우량자산의 매도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채권시장 불안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, 보험회사는 국채 매도와 더불어 환매조건부채권매매(RP)와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함
  -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은행과의 RP 거래 등에 의존하는 자금조달방식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

<그림 1> 보험회사 채권 순매도 및 RP 매도 (단위: 조 원)



주: RP 매도의 '22. 8은 1~8월 월평균, '22. 11은 11월 24일까지의 실적임  
 자료: 생명보험협회(2022); 송미정·김경무(2022)

<그림 2> 생명보험 저축보험 초회보험료 (단위: 조 원)



주: 개인보험의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분기별 실적임  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정보통계정보시스템

- (2022년의 교훈) 2022년의 경험은 지급여력이 충분한 보험회사라도 자산 또는 부채, 또는 자산과 부채에서 동시에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, 유동성리스크 관리는 현금흐름 불일치를 경감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줌
  - 첫째, 현금흐름 불일치는 금리(ALM)리스크 강화와 대량해지, 대재해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유발 요인을 반영한 K-ICS의 시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나, 유동성 지표와 위기상황분석을 재정비하여 단기 현금흐름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
  - 둘째, 비상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내의 금융안정계정\*이 안정적인 자금조달경로가 될 수 있을 것임
    - \*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및 자본확충 자금을 지원하는 계정

- 유동성 및 자본확충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안정계정이 **RP 거래와 자본성증권 매매**를 자금 지원 형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

○ (기회 요인) 금리 상승은 분명 보험산업에 호재임에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는 미흡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에도 원인이 있기에, 보험산업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토대로 2022년의 경험을 사업기회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

• K-ICS 시행과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는 단기적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, 유동성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는 파생상품 활용 확대와 더불어 보험회사에 적극적인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

첨부: CEO Report 『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: 2022년의 경험과 과제』

•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